인피니티 QX50은 넓어진 실내 공간과 뛰어난 공간 활용성, 329마력의 강력한 성능, 지능형 4륜구동 시스템이 주는 안전성을 통해 2016년 가장 기대되는 SUV로 주목받고 있다. 사진제공 | 인피니티코리아

329마력·지능형 4륜구동 SUV시장 '가성비 끝판왕'

인피니티 QX50·QX60의 매력 분석

QX50, VQ시리즈 V6엔진 탑재·보스 프리미엄 오디오 QX60, 최대 2166리터 적재공간·710만원 가격 조정

국내 자동차 시장의 SUV 열풍이 2016년에도 이어지고 있다. 2010년 이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SUV 시장은 지난 해 6만대 이상 판매되며 역대 최초로 차종 별 점유율 25%를 돌파했다. 소비자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를 읽을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다. 쉴 새 없이 쏟아지는 SUV 신차들 사이에서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은 인피니티의 SUV 라인이다. 독일 및 경쟁 일본 브랜드와 비교해 차체 크기, 출력, 토크, 가격 경쟁력 면에서 한 발 앞서 있기 때문이다.

●럭셔리 크로스오버 QX60, 가격 낮추고 상품성 높여

인피니티코리아는 SUV 시장 활황에 발맞춰 적극적인 가격 할인 정책을 펼치며 시장 공략을 가속화하고 있다. 지난해 3월 가족 중심의 고품격 라이프스타일에 어울리는 럭셔리 크로스오버 QX60의 가격을 최대 710만원 재조정했다. 강력한 퍼포먼스와 안전성, 넓은 실내 공간 및 최첨단 편의 장치 등 우수한 상품성을 갖춘 QX60은 높아진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2015년 판매량이 전년 대비 약 180% 증가하는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QX60의 최대 경쟁력은 7인승 대형 SUV가 갖춰야할 뛰어난 공간 활용성에 있다. 2열시트는 6:4 폴딩을 지원하고, 전·후방으로 최대 140mm까지 슬라이딩이 가능해 2열의 아동용 시트를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손쉽게 3열에 탑승할 수 있다.

3열 역시 여유로운 공간을 갖춰 장시간 탑승시에도 편안하다. 또한 2열과 3열 동시 폴딩 시 최대 2166리터에 달하는 넓은 적재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 다양한 레저 활동을 소화할 수 있다.

●뉴 QX50, 동급 최고의 상품 경쟁력

인피니티코리아에서 1월 출시한 뉴 QX50은 가성비의 끝판왕이다.

길어진 휠베이스, 개성을 더한 스타일, 럭셔리 SUV에 걸맞은 편의 사양 업그레이드 등을 통해 2016년 출시된 SUV 중 최고의 기대주로 떠오르고 있다. 뉴 QX50은 인피니티가 국내 D세그먼트 SUV 중 최초로 선보이는 롱 휠베이스 모델이다. 보다 넓고 여유로운 공간을 원하는 국내 소비자들의 니즈를 반영해 이전 모델 대비 전장과 휠베이스를 각각 110mm, 80mm 늘렸다. 외관 디자인 역시 스포츠 쿠페 감성의 바디라인과 최신 인피니티 디자인 DNA를 조합해 한층 세련되고 안정적인 모습으로 변화했다. 퍼포먼스 역시 주목할만하다.

미국 워즈오토(WardsAuto) 역사상 10대 엔진 최다 선정(15회)에 빛나는 VQ시리즈 V6 엔진을 탑재해 인피니티만의 폭발적인 주행성능을 자랑한다. 329마력의 최고출력은 지능형 사륜 구동 시스템인 아테사(ATTESA) E-TS AWD 시스템을 통해 운전자에게 완벽하게 전달된다. 후륜 구동을 기반으로 하는 이 시스템은 도로 상황에 따라 전륜과 후륜 사이의 토크를 최대 50:50까지 배분해 보다 안전한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다.

편의사양 및 감성품질 역시 경쟁 모델을 압도한다. 11개 스피커를 갖춘 보스 프리미엄 오디오시스템은 물론, 탑승자를 환대하는 웰컴 라이팅 시스템, 운전자 탑승을 배려한 이지 엔트리 시스템, 인텔리전트 포지셔닝 시스템 등을 기본 장착했다. 이 같은 상품성 개선에도 불구하고 뉴 QX50의 가격은 이전 모델 대비 330만원 인하된 5140만원(VAT 포함)이다. 정부 개별소비세 연장 인하 방침에 따라 6월까지 5090만원에 판매된다.

한편, 인피니티는 뉴 QX50 구매 고객 선착순 50명 한정, 개별소비세 전액을 지원하는 특별한 혜택을 마련했다. 이 경우 뉴 QX50을 4000만원대에 구매 가능하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인피니티 뉴 QX50과 경쟁 모델 주요 제원

	인피니티 뉴 QX50 3.7	렉서스 NX 300h	아우디 Q5 45 TDI	BMW X3 xDrive 30d
전장(mm)	4750	4630	4629	4648
전폭	1800	1845	1898	1881
전고	1615	1640	1655	1675
휠베이스(mm)	2880	2660	2807	2810
총 배기량(cc)	3696	2494	2967	2993
최고출력(ps)	329	199	245	258
최대토크(kg·m)	37	21	59.2	57.1
연료	휘발유	전기 가솔린	디젤	디젤

내부 인테리어

닛산 최고 기대주 '올 뉴 무라노' 올 상반기 출시

닛산 기술력 집약된 SUV 3세대 모델의 결정체 VIP 라운지 컨셉트한 내부 인테리어로 고급화

레저 및 캠핑 인구가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봄철을 맞아 각 브랜드에서는 다양한 신형 SUV를 출시하며 국내 소비자 공략에 나서고 있다. 한국닛산 역시 다양한 매력으로 무장한 SUV 라인업을 통해 국내 소비자를 사로잡겠다는 계획이다.

도심형 SUV 캐시카이는 2014년 국내 출시 이후 뛰어난 연료 효율성, 주행성능 등 국내 트렌드에 최적화된 상품성을 바탕으로 초도 물량이 모두 판매되는 등 인기를 휩쓸었다. 2007년 글로벌 출시 이후 전 세계적으로 200만대 이상 판매됐고, 2014년 상반기 유럽시장 SUV 부문 판매 1위를 달성하는 등 해외서 인정받은 가치를 국내에서도 입증한 셈이다. 지난해 국내에서는 총 2236대가 판매되며 닛산 브랜드 성장을 이끈 주력 모델로 자리 잡았다.

2월에는 고급스러움과 편의성을 한층 강화한 프리미엄 7인승 SUV 패스파인더의 2016년형 모델을 출시했다. 패스파인더는 미국 자동차전문평가기관 '켈리블루북'의 '최고 패밀리카'에 3년 연속 선정된 SUV다. 3열 공간 탑승을 손쉽게 돕는 EZ 플렉스 시팅 시스템과 유아용 시트를 제거하지 않고도 2열 좌석을 이동시킬 수 있는 래치&글라이드 등 가족 고객을 배려하는 첨단 편의사양을 갖췄다. 또 외부에서 에어컨 또는 히터 등 공조장치를 작동시킬 수 있는 원격시동시스템을 더해 패밀리 SUV로서 편의성을 높였다.

올 상반기 중 닛산에서는 최고의 기대주인 3세대 올 뉴 무라노를 출시한다. 닛산 기술력을 집약시킨 플래그십 모델로 닛산 브랜드 SUV 라인업을 완성시킬 핵심 모델이다. 닛산 SUV의 미래를 제시한 레저넌스 컨셉트(Resonance Concept)에서 영향을 받아 미래지향적이고 독창적인 디자인을 갖췄다. 'VIP 라운지'를 컨셉트로 한 인테리어는 안락함과 고급스러움으로 무장하고 차별화된 SUV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기대를 받고 있다. 한편 닛산은 올 한 해 스포티 CUV 쥬크, 도심형 디젤 SUV 캐시카이, 프리미엄 7인승 패스파인더, 올 뉴 무라노에 이르기까지 풍성한 라인업의 SUV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매력을 선보일 계획이다.

원성열 기자

2016년 닛산 SUV 라인업의 선두 주자는 3세대 올 뉴 무라노다. 혁신적인 디자인과 차별화된 편의 사양을 통해 수입 중형 SUV 시장의 다크호스로 주목받고 있다. 스포츠동아DB

2세대 BMW X1은 단점으로 지적되던 실내 및 적재 공간을 확대했다. 동력 성능도 업그레이돼 컴팩트 SUV 특유의 날카로운 주행 성능을 유감없이 발휘한다. 사진제공 | BMW코리아

더 크고 강력해진 BMW 뉴 X1, 승차감 업그레이드

쿠페 형태 라인·트윈 테일파이프 통해 역동적 디자인 8단 스텝트로닉 변속기·2리터 신형 디젤엔진 등 탑재

BMW X1은 컴팩트 SUV 시장을 개척하며 2009년 첫 출시 이후 현재까지 세계적으로 80만대 이상 판매된 베스트셀링 모델이다. 뉴 X1은 이전보다 강인해진 디자인과 넓은 공간을 갖췄으며 헤드업 디스플레이, 자동 평행주차 기능 등 프리미엄 옵션을 기본으로 장착하고 있다. 또 최신 엔진과 효율성이 최적화된 인텔리전트 사륜구동 BMW xDrive 시스템, 개선된 공기역학을 통해 한층 더 스포티한 주행 성능과 승차감, 효율성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더 커진 차체와 고급스러워진 디자인

뉴 X1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바로 디자인이다. 53mm 높아진 전고와 23mm 넓어진 전폭, 그리고 더욱 굵어진 키드니 그릴은 이전 세대보다 강력한 느낌을 선사한다. 후면 역시 지붕에서 차체 뒤쪽으로 이어지는 쿠페 형태의 날렵한 라인과 트윈 테일파이프를 통해 더 역동적으로 변신했다. 실내공간도 넓어졌다. 앞좌석 36mm와 뒷좌석 64mm 더 높아진 시트 포지션으로 운전시 최적의 전방 시야를 제공하며 뒷좌석 무릎 공간 또한 이전 보다 37mm 늘어나 상위모델인 X3와 견주어도 뒤지지 않는 탑승 공간을 갖췄다. 트렁크 용량도 85리터 증가된 505리터로 동급 최대 용량을 자랑한다.

●최신 세대 엔진과 새로운 xDrive 사륜구동 시스템

동력 성능과 편 투 드라이빙 능력도 한층 강화됐다. 2세대로 진화한 뉴 X1의 새로운 디젤 엔진은 터보차저 기술과 함께 커먼레일 연료 직분사 장치를 통해 견인력과 효율성을 높였다. 새로운 8단 스텝트로닉 자동변속기도 부드럽고 역동적인 기어 변속을 가능케 한다. 2리터 신형 디젤엔진이 장착된 뉴 X1 xDrive20d는 최고출력 190마력, 최대토크 40.8kg·m의 성능을 갖췄다. 이전 세대 대비 6마력, 2.0kg·m 향상된 수치다. 정지 상태에서 100km/h까지 도달하는데 7.6초, 복합연비는 14.0km/l(도심: 12.6km/l, 고속: 16.2km/l)다. BMW 인텔리전트 사륜구동 시스템인 xDrive도 뉴 X1을 위해 새롭게 개발됐다. 도로 및 기후 조건에 관계없이 언제나 최고 수준의 접지력과 안정성을 발휘하고, 퍼포먼스 컨트롤 기능을 통해 코너 주행 시 브레이크와 엔진 출력에 자동으로 관여해 오버스티어 또는 언더스티어를 신속하게 제어한다. 일상 주행은 물론 서킷 주행도 충분히 소화할 만큼의 퍼포먼스와 브레이크 내구성을 갖췄다는 점도 인상적이다.

●더 다양해진 프리미엄 기본 옵션

X1에는 컴팩트 SAV 최초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있다. 파킹 어시스턴트 기능도 기본 장착해 버튼 하나로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다. 풀 LED 헤드라이트와 LED 주간 주행등도 기본 제공된다. 또 파노라마 글래스 루프, 2존 자동 에어 컨디셔닝, 스포츠 스티어링휠, 후방카메라, 전·후방 주차 센서와 파킹 어시스턴스, 8.8인치 고해상도 컨트롤 디스플레이와 TV 기능이 포함된 한국형 내비게이션 등을 기본으로 장착하고 있다. 보다 편리한 레저 생활이 가능하도록 전동식 트렁크도 적용되어 있다. 가격은 BMW 뉴 X1 xDrive 20d는 5630만원, BMW 뉴 X1 xDrive 20d M 스포츠 패키지는 5810만원(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적용 기준 가격).

원성열 기자